

## 윤석열 탄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세종시민이 함께 행동할 때.

대한민국은 국민의 절절한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반헌법적 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를 감행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일시에 파괴한 역사적 범죄다.

다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권한을 정지시키기 위한 탄핵안 표결이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 탄핵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며, 여당 국회의원 최소 8명의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하여 오히려 동조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 내란의 공범을 자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탄핵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힘은 오직 국민의 목소리에서 나온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국민촛불대행진은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낼 소중한 기회다. 어쩌면 우리 국민이 평화 속에서 외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는 단순한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행동이다. 내란과 군사 반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내란 행위를 단죄하고 헌법 수호에 동참할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준엄한 외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국민촛불대행진에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행동해 주기를 호소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침묵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비극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다. 세종시민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 38만 세종시민의 힘을 모을 때다.

2024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